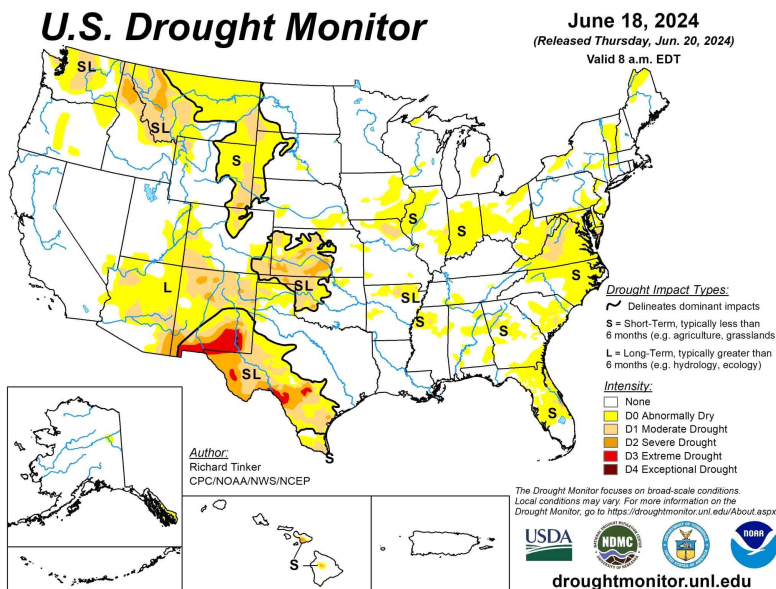




6월 2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26)

□ 미국 기후 현황(6/16-6/22)

반복되는 뇌우가 중서부 상부 지역을 강타하여 밭이 물에 잠기고 시골 도로가 폐쇄되었으며 여기저기 기록적인 하천 범람이 발생했고 국지적인 바람과 우박 피해가 발생했다. 2-6인치 또는 그 이상 되는 큰 비 중에서 일부가 네브라스카 북부 일부와 사우스다코타의 남부와 동부에서부터 아이오와 북부와 미네소타 남부를 포함한 오대호 상부 지역까지 내렸다. 중서부 상부에 발생한 대홍수의 일부는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의 잔재와 관련된 습기를 포함하여 열대지방에서 기원했다. 6월 20일에 알베르토는 멕시코 탐피코 근처 내륙으로 이동했고 폭우가 북쪽으로 텍사스 남부까지 확장되었다. 보다 광범위하게 열대성 소나기가, 플로리다 남부의 가뭄을 끝내는 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 후에 미국 걸프 연안 지역에 드문드문 내렸다. 열대성으로 강화된 습기가 남서부 몬순 순환으로 운반되기도 하면서 애리조나와 유타의 동부 구역까지 먼 서쪽에 폭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그 습기는 거대한 고기압 돔 주변을 따라 인도되었고, 그것이 남동부 평원과 중남부에서부터 대서양 중부, 중서부 하부 그리고 남동부 내륙까지의 덥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에 광범위하게 기여했다. 북부 평원과 북서부 내륙을 가로지르는 쌀쌀한 조건들과 중앙 평원에서부터 북동부까지 타오르는 더위 사이에 형성된 현저한 경계로 인해서 비가 내리기도 했다. 로키산맥 북부에서부터 고원 북부까지 많은 지역들에서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최소 5° F 낮았다. 일반적으로 시원한 날씨가 대부분 북부를 덮기도 했다. 대조적으로 옥수수 지대 중부에서부터 오대호 하부 지역까지 여러 곳들에서 측정값은 평년보다 평균 10° F 이상 높았다. 중부와 옥수수 지대 동부에 있는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들에서는 여름작물들이 토양 수분 감소와 이상 고온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 농업 현황 요약(6/17-6/23)

6월 23일에 끝나는 주간에 대서양 중부 대부분, 남부 그리고 극서부는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고 중서부 상부, 북동부, 대평원, 로키산맥 그리고 남서부 일부에서는 평년의 최소 2배의 강수가 기록되었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그리고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곳들은 해당 주간 9인치 이상의 비를 기록했다. 미국 동부 대부분은 6월 23일에 끝나는 주간에 평년보다 더 따뜻했다. 오대호 일부와 북동부는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대분지 대부분, 북부 평원 그리고 로키산맥 북부는 평년보다 선선했다. 이들 지역의 일부는 평년보다 6°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6/16-6/22)

■ 유럽:

대륙의 남동부 구석에서는 덥고 건조한 조건이 발달했으나 유럽 대부분으로 비가 확대되어 강해졌다. 지난주에 불리하게 습한 날씨가 다시 시작된 이후 프랑스 (25-100 mm)와 독일 (10-50 mm)에 보통 내지 강한 비가 내려서 야외 작업이 많이 지연되었고 익고 있는 겨울작물들에 대한 품질 우려를 높였다. 그러나 영국 남동부에서는 다소 건조한 날씨 (2-10 mm)가 겨울작물의 건조에 도움이 되었다. 스페인에는 매우 가변적이었으나 국지적으로는 심했던 소나기 (5-60 mm)가 단기 건조를 완화했고 영양기 옥수수과 해바라기를 위한 표토 수분을 개선했다. 마찬가지로 유럽 북동부 대부분에서 습한 날씨 (10-75 mm)가 영양기에 있는 소곡물 및 여름작물과 아울러 중실 비대 후기에 있는 겨울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올려 주었다. 반대로 이탈리아 북부의 건조한 날씨 덕분에 최근의 홍수가 가라앉았고 계절 야외 작업이 재개되었다. 더 동쪽으로 발칸반도 전역에서는 건조한 더운 조건들 (35-38° C)이 영양기 여름작물들의 발달을 가속화했고 겨울작물을 빨리 건조하고 수확할 수 있었다. 그리스에서는 건조함과 더위 (최고 41° C)가 단기 가뭄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5월 15일 이후로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에 내린 강우는 겨우 15 mm를 기록했는데 이는 평년의 28 퍼센트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지난 30년 동안 가장 건조한 것이다.

■ 구소련(서부):

절실히 필요했던 추가 강우가 내림으로써 러시아 남서부와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가뭄이 완화되었고 한편 광범위한 소나기가 더 먼 북쪽과 서쪽에 수분 공급을 양호하게 유지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의 남부 및 북부 카프카즈 지방에서 매우 가변적인 소나기와 뇌우 (5-30 mm)가, 러시아에서 가장 남서부에 있는 몇몇 지역들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가뭄을 더욱 완화했다. 그 소나기들은 이번 주의 더위 (33-36° C)가 영양기 여름작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최근에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 가뭄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상당한 장기 수분 결핍이, 특히 크라스노다르크라이와 로스토프 주 (남부지방의 남서부)에서, 지속되었다. 더 먼 북쪽과 서쪽에서는 보통 내지 강한 수준의 강우 (10-70 mm)가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서부와 북부 그리고 러시아 중서부 전역에서 계속되어 중실비대 내지 성숙 중인 겨울 곡물들 및 유지작물들과, 아울러 영양기 여름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 공급을 풍부하게 유지해주었다. 매우 대조적이게도 불가 지방 남부에서는 섭씨 30도 후반에 이르는 낮 최고 기온이 생식기 봄 곡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여름작물의 발달을 재촉했으나 보고에 따르면 이 동일한 지역들 중 상당수에 시기적절한 소나기와 뇌우 (10-35 mm)가 있었다.



■ 동아시아:

소나기 날씨가 남중국을 에워싸면서 어떤 지역에는 200 mm가 넘어갔다. 그 습한 날씨가, 국지적인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양쯔 강 남쪽에 있는 벼와 기타 여름작물들을 위한 수분 공급을 올려주었다. 또한 북동쪽의 강우 (10-75 mm 또는 그 이상)가 영양기 옥수수과 대두를 위한 수분 조건을 좋은 상태로 유지했다. 반면에 덥고 건조한 날씨가 화북평야 구역에서 계속되었다. 때때로 기온이 섭씨 30도 후반에 이르렀는데 그 조건들이 밀 수확에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름작물들에게는 불리했다. 한편, 서부 (신장)의 면화는 계속해서 거의 이상적인 재배 조건 하에서 발달하고 있었다 (스트레스 성 더위 없이 충분히 따뜻함). 이 권역 내 다른 곳을 보면, 한반도 전역에서 강우가 증가하여 발달하던 건조함이 완화되었고 계절 (5월 1일 이후) 총량이 거의 평년 수준에 가까워졌다; 일본에서는 일관된 강수가 그곳의 작물들에게 좋은 수분 공급을 유지해 주었다.

■ 호주:

호주 동부에서는 산발적이면서 일반적으로 약한 소나기 (대체로 5 mm 미만)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조생밀과 기타 겨울작물의 발달을 위한 조건을 양호하게 유지해주었다.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2-3° C 낮았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10도 중후반이었다. 아주 건조하게 재배기를 시작한 이후에 남호주에서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 (10-25 mm)가 발아하고 출현 중인 겨울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을 위한 수분 공급을 더욱 향상시켰다.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1-2° C 낮았고 최고 기온은 주로 섭씨 10도 후반에 있었다. 서호주에서는 밀 지대의 남쪽 및 서쪽 가장자리에 국한해서 가장 큰 비 (10-2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렸을 뿐이고 대부분의 주요 작물 생산 지역들에서는 더 약한 소나기들과 계절적으로 온화한 날씨가 우세하였다. 호주 남부와 서부에서는 최근의 강우가 겨울작물들의 초기 전망을 개선했으나 계절이 진행되면서 수확 잠재력을 유지하거나 더욱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려면 후속적으로 비가 내려야 할 것이다.

■ 아르헨티나:

소나기가 아르헨티나의 남부 및 북동부 생산 지역에서 겨울곡물의 발아를 위한 표토 수분을 증가시켰다. 약하거나 보통 수준의 비 (2-35 mm)가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퍼졌고 비슷한 양이 엔트레리오스에서부터 북쪽으로 코리엔테스를 관통하기까지 확대되었다. 주간평균기온은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평년보다 1-2° C 높은 데에서부터 파라과이와 브라질에 인접한 주들에서 평년보다 6° C 높은 데까지의 범위를 보여주었고 더 따뜻한 북쪽 지점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 C에 달했다.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전통적으로 더 선선한 곳들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수확되지 않은 여름작물들의 건조를 도왔으나 출현 중인 겨울 작물들에게는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6월 19일 현재 밀과 보리가 각각 57 및 48 퍼센트 파종되었다; 한편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60 및 59 퍼센트 수확되었다.

■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에 다시 폭우가 쏟아져 몇 주 동안 양호하게 건조한 조건이 있던 이후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여름작물의 수확 작업이 중단되었다. 강우량은 주 대부분에서 총 25-100 mm 였고 (국지적으로 200 mm 초과), 비슷한 양이 서쪽으로 파라과이까지 뻗어갔다. 히우그란지두술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6월 20일 현재 97 퍼센트 수확되었고 대두 수확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과도한 비가 새로 파종한 밀에게 국지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북동부 해안을 따라서 그리고 더 습한 남쪽의 소재지들에 인접한 파라나와 산타카타리나의 일부에 내린 계절적 강우를 제외하면, 따뜻하면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다. 파라나에서는 2기작 옥수수가 6월 17일 현재 29 퍼센트 수확되었고 작물의 나머지 77 퍼센트가 성숙하고 있었다; 한편 밀은 91 퍼센트 파종되었고 좀 더 일찍 심은 작물들은 생식에 들어갔다. 중앙 및 북동부 내륙 농업 지역들에서는 여름의 따뜻함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초중반에 도달)이 옥수수와 면화의 발달을 재촉했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6월 21일 현재 38 퍼센트 수확되어 5년 평균 속도보다 10 포인트 앞섰고 면화 수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